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아동기 외상과 테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아 영

아동기 외상과 테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이 정 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아 영

인 준 서

김아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11월

심사위원장

김 명 식

(인) 

심사위원

서 수 연

(인) 

심사위원

이 정 윤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각각 매개하는지, 나아가 두 변인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연인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연애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29세 미만의 미혼 남녀 304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거부민감성,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외상,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거부민감성, 내면화된 수치심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거부민감성은 이 둘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순차매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함을 밝힘으로써, 아동기 외상으로 인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이 발생하는 기제와 경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아동기 외상,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거부민감성, 내면화된 수치심

목 차

논문개요

I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 연구문제	8
1. 연구모형	8
2. 연구문제 및 가설	9
III . 이론적 배경	10
1. 데이트폭력	10
1) 데이트폭력의 개념과 하위유형	10
2)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론적 입장	13
2. 아동기 외상	15
1) 아동기 외상의 개념과 특징	15
2) 아동기 외상으로 인한 내재화 · 외현화 문제	17
3)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의 관계	18
3. 거부민감성	19
1) 거부민감성의 개념과 특징	19
2) 아동기 외상과 거부민감성의 관계	21
3) 거부민감성과 데이트폭력의 관계	22
4. 내면화된 수치심	24
1) 수치심의 개념과 특징	24

2) 아동기 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26
3) 내면화된 수치심과 데이트폭력의 관계	27
5.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	28
IV. 연구방법	30
1. 연구대상자 및 절차	30
2. 측정도구	31
1) 아동기 외상	31
2) 데이트폭력	32
3) 거부민감성	33
4) 내면화된 수치심	34
3. 자료분석	35
V. 연구결과	36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36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6
2) 기술통계분석	37
3)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38
2. 매개효과검증	40
3. 간접효과검증	43
VI. 논의	45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아동기 외상의 문항 구성	31
표 2. 데이트폭력의 문항 구성	32
표 3. 거부민감성의 문항 구성	33
표 4. 내면화된 수치심의 문항 구성	34
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6
표 6. 기술통계분석	37
표 7.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39
표 8. 매개효과 검증 결과	41
표 9. 간접효과 Bootstrapping 분석결과	44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8
그림 2. 거부민감성 모델	20
그림 3. 최종 모형	4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연인을 때리거나 심지어는 숨지게 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어 데이트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이재란, 정근선, 2020). 통계청(2020)에서 발표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9,940건으로 불과 2년 전인 2017년에 비해 무려 41.1% 증가했으며,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은 가해자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또한, 데이트폭력 가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심리적 폭력이 93.4%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이 63%, 성적 폭력이 49.5%로 높았다(조우연, 김경희, 2015).

경찰청에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데이트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놓고, '연인이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의 피의자를 엄정 수사하는 집중단속 기간을 실시하여 총 3,675건의 신고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713명을 형사입건(구속 82명)했다고 보고했다(경찰청, 2020).

이처럼 데이트폭력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ner-Cortens, Eckenrode, & Rothman(2013)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의 후유증을 알아보기 위해 데이트폭력 이후 5년이 경과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과 자살사고 정도가 높고, 반사회적 행동이나 마리화나 사용이 더 증가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반복해서 데이트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악순환 현상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데이트폭력은 단순히 연인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오윤희, 임성문, 2018).

세계보건기구는 데이트폭력을 “신체적 공격(physical aggression), 성적 강요(sexual coercion),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abuse) 및 행동의 통제(controlling behaviors)를 포함하여,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해를 초래하는 행동”이라 정의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이처럼 신체적 폭력에서부터 심리적 폭력을 포함하는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인 두 사람이 같은 시점에 서로 다른 유형의 공격을 주고받는 것 외에도 시간을 두고 서로 다른 날에 공격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Langhinrichsen-Rohling et al., 2012).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원인은 시점상 근접 요인(proximal factors)과 원격 요인(distal factors)¹⁾으로 구분할 수 있다(Dardis et al., 2015; Jennings et al., 2014). 기존 연구(Bell & Naugle, 2008; Elkins et al., 2013; McNaughton Reyes et al., 2012; Alleyne et al., 2011)에서는 주로 근접 요인에 대하여 데이트폭력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최근 연구 경향(Tussey, Tyler, & Simon, 2021; Tyler et al., 2017; Madan Morris, Murg, & Windle., 2015; 홍세은, 정지수, 2019)은 원격요인이 데이트폭력을 일으키는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원격요인인 아동기 외상을 살펴보고, 아동기 외상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일으키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아동기 외상은 유아기, 아동기의 심리발달을 취약하게 하고 손상을 입히는 충격적인 경험으로, 가족 내에서 부모를 비롯한 형제 또는 부모를 제외한 주

1) 예를 들어 양육환경, 과거 폭력 경험, 애착 유형,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육자(보호자)로부터의 방임과 학대를 의미한다(손승희, 2017).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여러 선행연구(Milaniak & Widom, 2015; Herrenkohl & Jung, 2016; Li, Zhao, & Yu, 2020)는 부모로부터의 학대로 인한 외상이 가장 대표적인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위험요인이자 원격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사회학습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부모의 폭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모방한다고 보았다(Bandura, 1978). 사회학습이론 중 배경-상황 이론(Background- Situational Theory)에 의하면, 학대를 비롯한 아동기 폭력피해 경험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친밀한 주변 사람들 간 관계에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발현한다고 하였다(Li, Zhao, & Yu, 2020; Steel, Watkins, & DiLillo, 2017; Dardis et. al., 2015; Widom, Czaja, & Dutton, 2014). Milletich 등(2010)은 여성과 남성 모두 어릴 때의 폭력 경험이 성인기 공격성 표출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여성의 경우 아동기의 신체학대 경험이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주었고, 남성의 경우에는 아동기의 정서학대 경험이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주었다.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기 외상은 성인이 된 이후에 갈등 상황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과 관련 있다(서경현, 2007). 가정폭력이나 학대의 노출 경험이 많은 아동일수록 폭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정당한 수단이라고 인식하여 폭력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이후에 성인이 되어 연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폭력을 사용하게끔 한다(서윤주, 박선태, 원유나, 2020). 따라서 사회학습이론과 여러 선행연구로 미뤄보아 아동기 외상이 성인기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아동기 외상은 성인기에 나타나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제3의 변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거부당할 것 같아 불안해하고, 사소하고 모호한 단서까지 거부의 신호로 지각하여 이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경계하는 성향을 의미한다(Downey & Feldman, 1996). 어떤 사람은 타인의 거부에 대해 평정심을 유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거부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서적인 불편감을 느끼기도 한다(Levy, Ayduk, & Downey, 2001). 따라서 거부민감성은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부민감성은 부모의 양육 태도(Erozkan, 2009), 부모와의 애착 관계(Khoshkam et al., 2012), 아동기 외상(Levy, Ayduk, & Downey, 2001)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기 외상이 거부민감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거부민감성의 발달은 과거 대인관계에서의 거부 경험 중에서도 특히 부모로부터의 거부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Bowlby, 1969).

Bowlby(1969)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양육자가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고 일관되게 반응할 때 아동은 타인이 자기를 수용하거나 지지할 것이라는 안정 내적작동모델이 발달하지만, 양육자가 아동의 욕구를 거부하면 아동은 타인이 자기를 수용하고 지지할지에 대해 불안과 의심을 품게 되는 불안정 내적작동모델이 발달하게 된다고 보았다(Hazan & Shaver, 1994). 이처럼 주 양육자의 비일관적인 태도와 반복적으로 거부를 경험한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박명진, 양난미, 2017).

또한, 거부민감성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신지연, 최수미, 2017).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연인의 거부나 배신 또는 연인이 떠나려는 시도 등을 더 자주 느끼고, 거부에 대한 강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어 연인에게 폭력성을 표출할 수 있다(Jacobs & Harper, 2013; Downey, Feldman, & Ayduk, 2000). 양승애와 서경현(2015)은 거부에 민감한 사람은 연인과의 갈등문제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상대를 신체적으로 공격하거나 성폭력을 행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승규와 최현정(2021)은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연인에게 거부를 지각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불안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데이트폭력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Bondü와 Krahé(2015)도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모호한 단서도 거부로 인지하여,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공격성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로 미뤄보아 거부민감성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매개할 또 다른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정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ized shame)은 수치심이 개인의 성격에 만성화되어 자기 전체에 대한 부적절감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고통스러운 감정이 지속되는 것을 일컫는다(Cook, 2001).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부정적인 자기 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식적 정서이며,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발생하는 감정이다(김용태, 2010).

아동기 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기

때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성인들에게서 높은 수준의 수치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Shahar, Doron, & Squepsenwol, 2015; Fowke, Susan, & Ashcroft, 2012).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린 시절 거부감을 느꼈던 경험이 부호화되어 현재의 자기관(self-view)에 영향을 미치는 강한 정서적 기억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며(Mikulincer & Shaver, 2004), 이는 아동기 외상으로 인한 수치스러운 기억이 이후의 삶과 자아정체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Matoss & Pinto-Gouveia, 2010; Pinto-Gouveia & Matoss, 2011).

정남운과 유은영(2015)은 아동이 어린 시절 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낮은 자기 확신과 자존감을 느끼게 되면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형성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손승희(2017) 역시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자기 존재에 대해 결함이 많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되고, 부적절함, 공허감, 자기 비난과 같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로 미뤄보아, 아동기 외상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이러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발달 초기에 겪은 수치심은 이후 만성적인 분노의 상태로 대체되고(Farmer & Andrews, 2009), 수치심 경험에 내포된 자기 평가의 인식이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Elison, Garofalo, & Velotti., 2014; Sippel & Marshall, 2011). 또한, Cook(2001)에 따르면,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여 자신의 낮은 자존감과 상대방의 높은 자존감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그 불일치 때문에 자아에 대한 좌절감이 공격성으로 이어져 성인이 된 이후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성이 표출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등으로 표출된다(한세영, 2007).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데이트폭력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Lawrence & Taft, 2013).

아울러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 간에도 순차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유발되는 정서인 수치심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 및 타인에 대한 판단과 같은 인지적 과정을 통해 형성하게 된다(Lewis, 2003). 이에 인지적 요인으로서의 거부민감성은 모호한 단서도 거부로 지각하여 내면화된 수치심을 과잉 반응하게 할 수 있다. 즉, 주로 거절이나 비판을 받는다고 인지하는 것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Scott et al., 2017). Velotti 등(2017)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개인적인 지위의 하락이나 거부감이 인지되는 사회적 사건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거부민감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선행하는 변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선행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들 간의 순차적인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각각 매개할 뿐 아니라,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 사이에도 순차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기여하는 변인과 그 경로를 밝힘으로써 아동기 외상으로 인해 데이트폭력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할 때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문제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각각 매개할 뿐 아니라, 거부민감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쳐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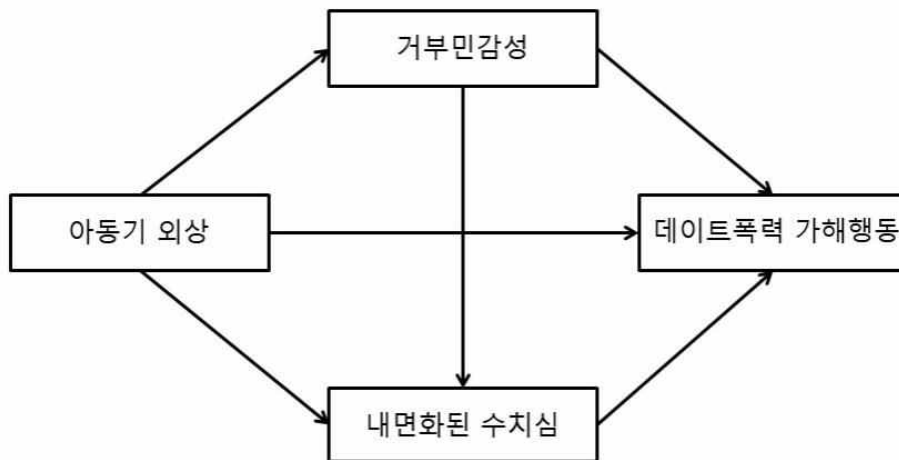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거부민감성,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아동기 외상,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거부민감성, 내면화된 수치심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2]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가?

가설 2-1.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거부민감성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하는가?

가설 3-1.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4]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순차 매개하는가?

가설 4-1.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순차 매개할 것이다.

Ⅲ. 이론적 배경

1. 데이트폭력

1) 데이트폭력의 개념과 하위유형

데이트폭력(Dating Violence)은 결혼하지 않은 커플 중 한 구성원이 자신의 연인을 상대로 신체적·심리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이와 관련한 위협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Anderson & Danis, 2007).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은밀하고 지속적이며(강희순, 이은숙, 2014), 정서적 지지를 기대한 대상에게서 받은 폭력이라는 점에서 다른 폭력보다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남길 수 있다(서경현, 2008; Holmes & Sher, 2013). 또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의 전조로서 결혼 후 부부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Greenman & Matsuda, 2016).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유사하며, 관계의 유형이 연인관계에 국한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서장원, 2021).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이라고도 부르며(Krug et al., 2002),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과도한 통제 및 감시, 언어적 위협, 무시와 같은 다양한 심리적 폭력까지를 포함한다(Niolon et al., 2017). 데이트폭력은 단일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다양한 유형의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재란, 정근선, 2020).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그리고 행동의 통제로 그 하위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신체적 폭력은 팔을 비틀거나 꼬집는 행

동, 힘껏 움켜잡는 행동, 거칠게 미는 행동, 뺨을 때리는 행동, 발로 차는 행동,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리는 행동, 목을 조르는 행동, 심하게 마구 때리는 행동, 뜨거운 물이나 불로 화상을 입히는 행동,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동 등을 의미한다(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Archer(2002)의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공격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신체 상해를 야기할 정도의 상식적 수준에서 벗어난 폭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여성(62%)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Chan(2011)도 남성은 목을 조르거나(choke) 심하게 구타하는(beat up) 등의 심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폭력 행동을 보이지만, 여성은 뺨을 때리거나 뭉툭한 물건을 던지는 등의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상해를 입히는 폭력 행동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영숙(2005)의 연구에서도 심각한 신체적 폭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자기방어를 위해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으로 신체적 폭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리적 폭력은 무시하기, 문을 강하게 닫거나 상대방의 물건을 부수는 행위, 비난하기와 같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뜻한다(백옥현, 2010). 조인형(2009)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폭력의 유형이 상이했는데, 남자는 신체적 폭력의 가해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자는 심리적 폭력의 가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성적 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강제하는 것을 뜻하며, 성희롱, 신체적 폭력을 쓰지 않았으나 원하지 않은 형태의 성행위 요구, 유사 성교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위협을 하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홍영오, 2017; Cornelius & Resseguie, 2007; Straus et al., 1996). 남귀숙과 이수진(2020)은 심리적, 신체적 폭력의 가해 비율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성적 폭력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통제는 상대방의 특정한 행동을 못 하게 한다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연락이 잘 안 되면 통화가 될 때까지 집요하게 연락을 하는 행위 또한 행동의 통제에 해당하며(권혁남, 2017), 상대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되게 만들거나, 핸드폰, 이메일, 개인 블로그 등을 점검하고, 옷차림이나 모임 등을 제한, 특정 행위의 강요,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 통화될 때까지 전화하는 행위 등도 행동의 통제에 포함된다(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이러한 데이트폭력은 유형이 상이하여 비교적 최근까지도 어디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간주하고 연구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이 분분했다(홍영오, 2017). 초기 데이트폭력 연구들은 데이트폭력을 성적인 것을 포함한 신체적 공격성으로 한정 지었으나(O'Keefe, 1997; Makepeace, 1981). 최근 데이트폭력 연구는 언어폭력, 정서적 학대, 겁을 주는 행동 등을 일컫는 심리적 폭력까지 데이트폭력에 포함해 심리적 폭력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오윤희, 임성문, 2018; Rubio-Garay et al., 2017).

이처럼 데이트 상대로부터의 폭력피해는 심리적, 신체적 및 성폭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Straus, 2008). 최근에는 폭력에 대한 인식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 폭력이나 행동의 통제 역시 피해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고통과 상처를 줄 수 있기에 데이트폭력을 점차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홍영오,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론적 입장

데이트폭력을 이해하기 위해 크게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여성주의 이론(Feminist Theory), 애착 이론(Attachment theory), 강압 가설(Coercion hypothesis)등을 살펴보고자 한다(Shorey, Cornelius, & Bell., 2008). 가장 먼저 데이트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학습이론을 들 수 있는데, Bandura(1978)는 일반적으로 행동은 관찰과 모방을 통해 학습한다고 보았다. 사회학습이론은 데이트폭력 역시 일반 행동과 마찬가지로 관찰, 모방, 모델링을 통해 학습한다고 보았으며, 크게 세대 간 전이이론(Intergeneration Transmission of Violence Theory)과 배경-상황이론(Background-Situational Theory)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Dardis et. al., 2015).

먼저, 세대 간 전이이론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경험하였거나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면서 성장한 자녀일수록 이후에 폭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설명한다(Dodge et al., 1990). 이에 비해, 배경-상황이론은 커플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를 결정짓는 것은 배경 요인(학대의 경험 또는 목격, 공격적인 성격 특성, 공격 경험, 각성 수준, 정신병리)과 상황 요인(대인 간 갈등, 관계 만족도, 문제해결기술, 약물 남용, 의사소통 스타일)의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한다(Riggs & O'Leary, 1989)

이 두 이론은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이 부모의 폭력적 행동을 모방하고,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학습하여 대물림된다는 공통점은 있으나(Gelles, 1997), 세대 간 전이 이론은 폭력 행동의 모델링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델링의 유용성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Shorey, Cornelius, & Bell., 2008).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배경-상황 이론은 세대 간 전이 이론보다 포괄적인 모형이라 볼 수 있다(홍영오, 2017).

데이트폭력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 여성주의 이론을 들 수 있다. 여

성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은 남성과 여성 간 권력과 통제에 대한 투쟁을 유발하는 가부장적 사회시스템의 결과로서, 대인 간 폭력 역시 남성의 지배성과 여성의 순종이라는 기존의 권력 구조가 표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 (Shorey, Cornelius, & Bell., 2008). 또한, 데이트폭력은 종종 통제를 힘 있는 자, 특히 남성이 여성을 자신에게 종속시키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의미한다(Stark, 2009).

다음으로 애착 이론(Bowlby, 1969)에서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적 표상이나 관계의 원형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이 관계의 원형은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을 유지하며 관계의 모델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학대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형성하게 되면 이것이 이후 성인기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Bowlby, 1969). 불안정 애착유형의 연인관계를 살펴보면, 불안정 애착유형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신뢰나 친근감 등을 느끼기보다 질투심과 불신 등을 더 많이 경험하며(Hazan & Shaver, 1987), 선행연구(Lee, Reese-Weber, & Kahn, 2014; Madan Morris, Murg, & Windle., 2015)에서 그들이 데이트폭력의 가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압 가설에 따른 데이트폭력은 협박, 격리, 통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폭력 가해자들은 사회적 통제력과 관계에서의 힘을 얻고 지배력을 입증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Dutton & Goodman, 2005; Katz, Jones, & Beach, 2000). 강압적 통제는 단지 힘(force)으로 이루어지기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규칙(rule)에 대해서 이를 충족할 때에는 칭찬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벌을 내리는 방법과 감시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Dutton & Goodman, 2005). 이러한 강압적 통제는 주로 남성이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활용하는데, 그 이유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은 자원이 분배되는 사회문화적 불평등 때문이다(Dardis et. al., 2015).

지금까지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주는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이론 중 사회학습이론을 바탕으로 데이트폭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어린 시절 부모의 서로 간 폭행 등을 보면서 자란 아동이 성인이 되면 여러 형태의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성 간의 만남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홍영오, 2017).

2. 아동기 외상

1) 아동기 외상의 개념과 특징

외상(trauma)은 극심한 무력감과 두려움의 감정을 동반한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 부상을 말한다(Goodman, Quas, & Ogle, 2010).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에 의하면 심리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이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타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한 경우’를 말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외상은 그 심각성과 종류, 맥락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는데, 외상이 지속적이며 인위적이고 가학적일 때, 그리고 아동기 양육자에 의해 이루어진 외상일수록 그 영향이 심각하다(Allen, 1995). Allen(1995)은 심리적 외상을 일회적 외상(single-blow trauma) 대 반복적 외상(repeated trauma), 자연적 외상(natural trauma) 대 인위적 외상(man-made trauma)으로 각각 구분하였

고, 특히 이 연구에서는 강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 성폭행과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인위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아동기에 일어난 외상은 양육자나 보호자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나 방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이현정, 장희순, 2014). 또한, 학대 혹은 방임의 빈도나 기간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Van der Kolk & Courtois, 2005), 아동기 외상은 유아기, 아동기의 심리발달을 취약하게 하고 손상을 입히는 충격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손승희, 2017).

아동기 외상은 학대와 방임으로 구분하며,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또는 신체적 및 정서적 방임으로 분류한다(유재학 외, 2009). 먼저, 아동기 외상 중 학대에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있는데, 신체적 학대는 부모 혹은 주 양육자로부터 고의로 신체적 손상 또는 물리적 위협을 당하거나 입은 모든 행위의 경험을 말하며,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로부터 정서적 위협, 모욕적인 말, 감금 및 기타 가학적 행위의 경험을 뜻한다(Bernstein & Fink, 1998). 다음으로 방임은 신체적 방임과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하는데, 신체적 방임은 부모 혹은 주 양육자가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건강을 위협하고, 일상생활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신체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험을 말하며, 정서적 방임은 부모와 같은 보호자로부터 애정, 격려와 지지, 친밀감, 소속감, 양육 등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Bernstein & Fink, 1998).

신체적 학대는 학대의 정의와 식별이 용이하기 때문에 연구자들로부터 더 많은 주목을 받아 왔는데, 이러한 신체적 학대는 성인의 심리적 ·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격성, 분노 조절의 어려움 등과 같은 행동 문제를 일관되게 예측하였다(Kuper & Turanovic, 2020; Richey et al., 2016; Van der Put et

al., 2015). 하지만 이에 비해,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신체적 학대보다 발견되기 어렵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Crawford & Wright, 2007),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Christ et al., 2019; Liu et al., 2017).

2) 아동기 외상으로 인한 내재화 · 외현화 문제

아동기 외상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심두경, 백용매, 2019; 배라영, 최지영 2018; Gardner, Thomas, & Erskine, 2019) 뿐만 아니라 알코올과 약물 남용, 가정폭력과 같은 외현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O'Sullivan, Watts, & Shenk, 2018; Richey et al., 2016; Oshri et al., 2015). 또한, 아동기 외상은 심각한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련이 높는데,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흔하게 어린 시절에 충격적인 외상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Ogata, Silk, & Goodrich, 1990). 이러한 충격적인 외상경험에는 주 양육자로부터 정서적 철회(emotional withdrawal), 신체적 학대, 무시, 중요한 사람과의 이별이나 사별과 같은 외상적 상실 경험이 포함되며, 이러한 아동기 외상이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elgeland & Torgersen, 2004; Johnson et al., 2001).

이처럼 가족 내에서 경험한 아동기 외상은 성격 형성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손승희, 2017). 구체적으로 아동기 외상은 불안정 애착 형성과 관련이 높고, 낮은 자존감, 타인의 정서에 대한 지각의 어려움 등 내면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Pollak et al., 2000). 이는 아동기 외상이 성인의 심리적 부적응을 적절히 다루는 것을 방해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기 외상이 개인의 인지 도식과 관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심두경, 백용매, 2019).

Young, Klosko와 Weishaar(2003)는 아동기 학대 경험으로 인한 부적응적 인지 도식의 형성과정을 설명하였는데, 초기 부적응 도식은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인지, 정서, 기억을 구성하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패턴 또는 주제를 의미한다. 이처럼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축적은 이러한 초기 부적응 도식에 영향을 주는데, 초기 부적응 도식 중 흔히 단절/거절영역이 초기 외상과 학대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며, 아동기 학대적 경험이 기질과 상호작용하면서 초기 부적응 도식을 발생시키는 유발인자가 된다(Crawford & Wright, 2007; Messman-Moore & Coates, 2007). 따라서,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거절이나 단절과 관련된 초기 부적응 도식에 영향을 미쳐 성인기에 대인관계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다(이현정, 장희순, 2014).

3)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의 관계

아동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부모의 민감하고도 적절한 신체적·정서적 반응과 보살핌은 아동의 장기기억 체계 속에 자신과 양육자에 대한 긍정적인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을 형성시킬 뿐 아니라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발달시켜 타인의 입장에서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Schore, 2002).

이러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정신적 표상과 상호주관성은 아동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지속해서 경험한 아동은 자기 존재에 대한 무가치감과 함께 양육자를 불신하는 자기표상(self representation)과 타인표상(other representation)이 발달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표상들은 아동의 깊은 내면에 절망감과 분노를 유발한다(Bowlby, 1973).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설명한 최근 선행연구(오윤희, 임성문,

2018; 조우연, 김경희, 2015; Widom, Czaa, & Dutton, 2014; Lee, Reese-Weber, & Kahn, 2014; Simons et al., 2008)에서 성인의 아동기 학대나 방임이 연인관계에서의 폭력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학대 경험은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공격성과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며(조우연, 김경희, 2015), 방임 경험도 학대 못지않게 파트너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idom, Czaa, & Dutton, 2014; Dardis et al., 2013). Simons 등(2008)도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되고, 이는 이후에 성인이 되어 데이트 상대에게 성적 강요와 같은 가해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모두 종합해볼 때 아동기 외상이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3. 거부민감성

1) 거부민감성의 개념과 특징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이란 대인관계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와 거부를 항상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인지-정서적 과정을 의미한다(Feldman & Downey, 1994).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거부나 거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거부 경험은 개인의 인지·정서·행동적 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정서적 불편감을 일으킨다(Katja et al., 2011).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 단서에 대해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박명진, 양난미, 2017). 이

러한 신념은 실제로 거부를 지각하게 되는 순간 불안과 분노,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갖게 하며(Ayduk, Downey, & Kim, 2001; London et al., 2007), 삶의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박명진, 양난미, 2017).

Levy 등(2001)이 제시한 거부민감성 모델은 어떤 사람들이 거부를 인식하고, 거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거부민감성은 초기 거부 경험에서부터 발달하며, 초기 일차 양육자와 아동 간의 문제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성인이 되어서도 개인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있어서 지속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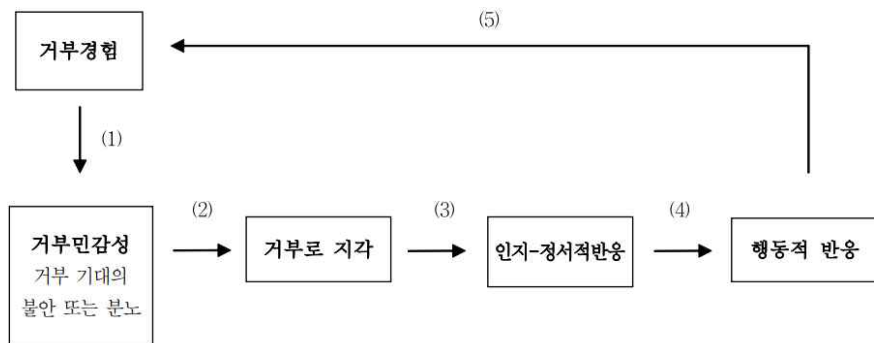


그림 2. 거부민감성 모델(Levy, Ayduk, & Downey, 2001)

거부민감성 모델은 그림 2와 같은 일련의 단계적 특징들을 나타내는데, 첫째, 거부민감성은 유아기의 거부경험으로부터 발생하며, 둘째,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거부의 가능성이 있을 때 거부에 대한 기대가 활성화된다.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 심하게 경계하고, 거부 단서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준비하게 된다. 셋째, 일단 자신이 거부될 것이라 지각되면 자기 또는 타인 비난을 비롯한 상처, 분노와 같은 인지-정서적 반응이 나타난다. 넷째, 인지-정서적 반응을 통해 거부 단서에 대하여 적대감과 지지의 철수, 질투, 낙담 및 공격 등 반사적인 반응뿐 아니라 격렬한 정서적, 행동적 과잉반응이

나타난다. 다섯째, 거부에 대한 개인의 지각오류는 타인의 애매모호한 행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하고, 이는 거부될 것이라는 자기충족적 예언을 만들어낸다(Downey, et al., 1998).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를 지각하는 역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쉽게 거부로 지각하게 하는 거짓 경보를 더욱 내리기 쉽다. 이처럼 거부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의 활성화는 타인의 악의 없는 행동마저 쉽게 거부로 지각하게 만드는 것이다(박명진, 양난미, 2017).

이러한 거부민감성은 우울증, 사회불안장애와 공격적인 행동의 원인이 되거나 이러한 증상을 강화하는 요인일 수 있으며(Foxhall et al., 2019; 이영아, 이인혜, 2016; Zimmer-Gembeck et al., 2016; Rosenbach & Renneberg, 2011), 대인관계와 개인의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Mclachlan, Zimmer-Gembeck, & McGregor,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 모델을 적용하여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한다고 지각하여 정서적 반응으로서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한 행동적 반응으로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이 일어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아동기 외상과 거부민감성의 관계

거부민감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거부 받는다고 느끼는 사회불안과 달리, 중요한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 특징이다(Downey et al., 2004). 거부민감성은 아동기 학대 혹은 방임을 포함하는 거부적 환경에서 발달하며, 이러한 거부민감성은 거부적 환경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적응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Pietrzak, Downey, & Ayduk., 2005).

아동기 외상과 거부민감성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에 의하면, Downey 등

(2004)은 부모로부터의 무관심과 비난, 거절이나 거부와 같은 아동기의 외상 경험이 타인에 대한 불안과 의심을 활성화하는 거부민감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배라영과 최지영(2018)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 정서적 위협, 감금 및 기타 가학적 행위를 경험한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경계심을 갖게 되고, 모호한 단서도 의도적인 거부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았다.

아동기 외상 중 정서적 학대가 전형적으로 실제적 거부를 수반하는 경험인 점을 고려할 때(Chango et al., 2012), 반복적인 거절의 경험이 만성화되면 타인으로부터의 거절에 과도하게 예민하게 되어 거절당할 것 같은 높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Mclachlan, Zimmer-Gembeck, & McGregor, 2010). 하수홍(2013)과 Ibrahim 등(2015)도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이 거부민감성과 정적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거절 신호를 민감하게 기대하고, 자신이 수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로 미뤄보아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거부민감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 거부민감성과 데이트폭력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희경, 김경희, 이홍권(2014)은 대인관계 맥락에서 거부 경험에 취약한 기질을 보이는 사람은 거부 신호에 대해 민감해지고 과잉 경계할 경향성이 높아 공격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연인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관계의 상실이나 상대방의 거부를 자신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여 연인관계를 파국적으로 해석하기 쉬우며, 결국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느끼게 되어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이희경, 김경희, 이홍권, 2014).

거부민감성은 예기불안 혹은 예기분노를 포함하는데, 특히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게 되면 이들은 충동적이고 감정에 휘둘려 상대를 공격하게 될 수 있다(Jacobs & Harper, 2013). 신지연과 최수미(2017)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거부민감성은 데이트폭력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는데,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연인관계에서 거부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거부를 당하기 싫어 반응적으로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Downey 등(2004)은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거부 관련 자극에 노출되었을 경우, 신체적 반응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연인의 거부나 배신 등을 느낄 때 이에 대한 강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폭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한편, Volz와 Kerig(2010)는 거부민감성과 데이트폭력의 인과관계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연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절박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들은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일수록 거부의 단서를 쉽게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파트너를 향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4. 내면화된 수치심

1) 수치심의 개념과 특징

수치심은 개인의 내부에서 불편감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정서이자, 전체 자기(entire self)에 대한 평가절하와 부정으로 인해 자신이 유치하고,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져 종종 숨거나 사라지고 싶은 감정이다(Lewis, 1971). 수치심은 대표적인 자의식적 정서로서, 발달적으로 기본적인 정서들(basic emotions) 이후에 형성되며 인지적 평가를 요구하는 정서이다(Lewis, Alessandri, & Sullivan, 1992). 즉, 수치심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 및 타인에 대한 판단 등의 인지적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Lewis, 2003).

수치심은 크게 상태 수치심(state shame)과 특성 수치심(trait shame)으로 구분한다. 상태 수치심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일시적으로 강렬하게 느끼는 하나의 정서 반응을 의미하지만, 특성 수치심은 ‘자기와 타인 간 관계 경험의 중심을 이루는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현상’을 의미하며 다른 용어로 ‘내면화된 수치심’이라고도 한다(Goss, Gilbert, & Allan, 1994). 이러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스스로에 대해 부적절하고 무력하면서도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개인의 자의식에서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며, 개인의 행동이 아닌 ‘자기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게 하는 정서이다(Kaufman, 2004).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경험하게 되는 수치심은 과거의 행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야기되는 죄책감과 다르다(고진경, 2018). 죄책감은 행위 자체에 대한 감정으로, 행위에 대한 반성 및 수정하려는 동기를 발생시키는 적응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만, 수치심은 더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야기하며, 자신 및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

및 고통스러운 상태를 탈피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일으킨다(Lewis, Alessandri, & Sullivan, 1992).

수치심은 다른 정서들과 임의적인 경계를 지니며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신재은, 2015). 이에 따라 수치심과 관련한 다양한 심리적 이론들(Freud, 1905; Adler, 1933; Kohut, 1971)을 중심으로 수치심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Freud(1905)는 수치심을 도덕성과 함께 성적 경험을 억압하는 원인으로 보았으며, 수치심을 자기 개방과 자기표현을 꺼리게 하는 일종의 방어기능으로 간주했다(Freud, 1905). 이와 관련해 Lewis(1987)는 수치심은 자신이 타인의 시각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여기게 하므로, 철회 및 회피행동을 동기화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Adler(1933)는 열등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치심과 관련한 현상의 중요성을 증가시켰으며, 부모와의 유대감이 잘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한 성인은 만성적인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Ansbacher & Ansbacher, 1956; Cinamon & Blustein 2020에서 재인용).

한편, 자기심리학적 입장에서 본 Kohut(1971)은 초기에 수치심을 자기에적 구조 안에서 과대적 자기에 대한 인정과 지지가 결핍되었을 때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정서라고 보았다. 주 양육자가 유아의 자기를 인정하거나 지지하지 않으면 유아는 자기에적 상처를 입게 되는데, 초라한 자기에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곧 수치심이다(Brown, 2004). 다시 말해, 수치심은 유아가 주 양육자의 감정적 표현을 내면화해서 발생하지만, 나중에는 이 감정들이 자기 경험을 일정한 방향으로 조직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Brown, 2004).

따라서 수치심은 죄책감과 달리 자기 정체성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되어 있어(고진경, 2018), 실제로 죄책감보다 수치심이 심리적 외상 증상들과 더 높은 상관성이 나타나, 다양한 정신 병리적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신재은 외, 2015; Matos, Pinto-Gouveia, & Duarte, 2013).

2) 아동기 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아동은 가정환경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모든 학대와 방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가치를 절하하고 수치심을 내면화하게 된다(Gilbert & Procter, 2006). Webb 등(2007)은 외상 이후 수치심 경험은 대부분 자신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메시지와 비판을 받은 결과일 수 있다고 보았다.

아동기 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비난을 받았거나 부모가 자신을 거부, 유기했다고 지각할 경우 내면화된 수치심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hahar, Doron, & Szepeswol, 2015; 최은영, 안현의, 2011; Fowke et al., 2012).

Fowke 등(2012)은 아동기 외상 중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Shahar 등(2015)은 정서적 학대가 정서적 방임보다 수치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이는 정서적 학대가 부모로부터 수치스러운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 아이들의 부정적인 도식을 발달시킬 가능성을 더 높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서적 방임은 부모로부터 방임된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수치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Shahar et al, 2015). 황은수와 성영혜(2006)도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아동보다 수치심 경향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구를 통해 정서적 학대가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은영과 안현의(2011)의 연구에서 아동기 외상 중 정서적 학대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결함이 있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면서

부적절감, 공허감, 자기 비난, 실수불안 등의 내면화된 수치심을 갖게 되며, 또한 정서적 학대가 다른 유형의 학대와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는 정서적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 안에서 자라는 아동들이 다른 유형의 학대 역시 중복해서 경험할 가능성을 의미한다(최은영, 안현의,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 내면화된 수치심과 데이트폭력의 관계

수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연인관계 갈등 및 좌절 상황에서 공격성을 보이게 된다(고진경, 2018; Hundt & Holohan, 2012). 고진경(2018)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과 무능감을 동반하는 강렬한 정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를 처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치심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감정을 억압하거나 방어하게 됨으로써 정서조절의 곤란을 경험하게 하여 이는 결국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Hundt와 Holohan(2012)은 남성을 대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연인사이에서 폭력성을 예측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남성은 파트너의 자기가치(self-worth)를 떨어트려 연인 상대가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도구적 동기로 연인사이에서의 폭력을 저지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다연(2021)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측하였는데,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고조시켜 친밀한 타인에게 공격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Thomaes et al., 2011; Wright, Gudjonsson, & Young, 2008). Aslund 등

(2009)은 수치스러운 경험을 많이 한 여학생이 수치스러운 경험을 적게 한 여학생보다 신체적 공격성이 4배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Harper 등 (2005)은 수치심이 연인관계에서 폭력 유형 중 심리적 폭력과 연관이 높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5.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

본 연구에서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한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 사이에도 순차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강렬한 부정적 감정을 자주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Barlow et al., 2014),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대인관계에서의 거부 경험에 대한 반응인 수치심이라 할 수 있다(Chapman, Walters, & Gordon, 2014). 따라서 수치심은 개인적 신분의 추락이나 타인의 거부를 예민하게 지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다(Leary, 2015).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경계선 성격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구한 Gratz 등(2010)은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거절과 비판과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후 수치심을 경험했으며, 이들은 피드백 이후 5분이 지나도 수치심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Scott 등(2017)은 사회적 거절이나 비판을 민감하게 거부로 지각하는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거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수치심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것을 발견했으며, Godfrey(2017)도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 거부민감

성이 높을수록 수치심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았다.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정미자, 2019; 임성미, 이상희, 2019; 서지영, 2016)에서도 거부민감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임성미와 이상희(2019)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내면화된 수치심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하였고, 서지영(2016)도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거부경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거부라고 지각된 상황에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거부민감성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높이는 선행 요인으로 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순차적으로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절차

본 연구는 현재 연인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연애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29세 미만의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미혼 남녀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G*Power program을 활용하였으며, 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로 설정했을 때, 최소 표본수는 160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최소 296명에서 최대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손연우, 권호인, 2018; 조우연, 김경희, 2015)하였기에,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표본수를 420명으로 산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예: 에브리타임), 또는 SNS(예: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설문지 링크를 올려 진행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420부였으나, 수거한 설문지 중 아동기 외상 경험을 묻는 모든 문항에 '전혀 없었다(1점)'로 응답한 자료 65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51부를 제외하여 총 30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IRB(승인번호:SSWUIRB-2021-055)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2. 측정도구

1) 아동기 외상

아동기 외상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한 아동기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tic Questionnaire; CTQ)를 이유경(2006)이 번안하고, 김은정, 김진숙(2010)이 타당화한 단축형 아동기 외상 질문지(CTQ-SF)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님을 비롯한 주 양육자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이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개의 하위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 4개의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없음, 5점=매우 자주 있음)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외상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은정, 김진숙(2010)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 는 .89이었고, 학대와 방임 하위요인은 각각 .86과 .85이었다. 손승희(2017)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 는 .90, 하위척도들의 Cronbach's α 는 정서적 학대 .84, 신체적 학대 .84, 정서적 방임 .92, 신체적 방임 .61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 는 .93이며,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s α 는 .76 ~ .93로 나타났다.

표 1. 아동기 외상의 문항 구성

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정서학대	5	1~5	.88
신체학대	5	6~10	.89
정서방임	5	11*,12*, 13*, 14* 15*	.93
신체방임	5	16, 17*, 18, 19, 20	.76
전체	20		.93

*역채점 문항

2)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개발한 갈등책략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를 우리나라 대학생에게 맞게 수정 및 보완한 김정란(1999)의 개정판 갈등책략척도를 사용하였다. 갈등책략척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혼 및 기혼 성인들에게 사용하도록 개발된 것이다(서장원, 2021). 본 척도는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본 척도는 연인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심리적·신체적·성적 폭력 내용에 대한 가해경험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란(1999)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남귀숙, 이수진(2020)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 는 .90이었으며, 각 하위척도의 Cronbach’s α 는 심리적 폭력 .81, 신체적 폭력 .75, 성적 폭력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 는 .86이며,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s α 는 .61 ~ .76로 나타났다.

표 2. 데이트폭력의 문항 구성

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심리적 폭력	11	1,2,3,4*,5,6,7,8,9*,10,11	.75
신체적 폭력	7	12,13,14*,15,16,17,18*	.76
성적 폭력	4	19,20,21*,22	.61
전체	22		.86

*역채점 문항

3)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거부민감성 척도(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를 토대로 박명진과 양난미(2017)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예기분노, 예기불안, 과잉반응, 거부지각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거부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명진과 양난미(2017)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 는 .93이었고, 신지연, 최수미(2017)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0, 하위척도들의 Cronbach's α 는 예기분노 .87, 예기불안 .78, 과잉반응 .81, 거부지각 .8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 는 .85이며,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s α 는 .60 ~ .81로 나타났다.

표 3. 거부민감성의 문항 구성

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예기분노	5	1, 2, 3*, 4, 5	.77
예기불안	3	6, 7*, 8	.60
과잉반응	4	9, 10, 11, 12	.81
거부지각	3	13*, 14, 15	.60
전체	15		.85

*역채점 문항

4) 내면화된 수치심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Cook(2001)이 개발한 척도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적절감, 공허, 자기 처벌, 실수불안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통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치심 수준을 나타낸다. 이인숙,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3이었고, 하위척도들의 Cronbach’s α 는 부적절감 .89, 공허감 .86, 자기처벌 .78, 실수불안 .74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 는 .94이며,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s α 는 .68 ~ .90로 나타났다.

표 4. 내면화된 수치심의 문항 구성

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부적절감	10	1, 2, 3*,4, 6, 7 ,8, 9, 10*,19*	.90
공허	5	18, 21, 22, 23, 24	.90
자기처벌	5	12, 14, 16, 17, 20	.81
실수불안	4	5, 11*,13, 15*	.68
전체	24		.94

*역채점 문항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25.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로,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신뢰도 분석을 통해 내적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도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연구에 사용한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네 번째로, 아동기 외상,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거부민감성, 내면화된 수치심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 번째로,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순차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5)가 제시한 SPSS Process Macro 모델 6인 직렬다중매개모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반복 횟수 10,000번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총 304명으로 남성 95명(31.3%), 여성 209명(68.7%)이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만 27세~29세가 142명(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23세~26세가 126명(41.4%), 만 19세~22세가 36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생(4년제)이 191명(62.8%)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생이 74명(24.3%), 전문대학교 졸업생(2, 3년제)이 33명(10.9%), 대학원 이상(수료, 재학 포함)이 6명(2%)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04)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95	31.3%
	여자	209	68.7%
연령	19세~22세	36	11.8%
	23세~26세	126	41.4%
	27세~29세	142	46.8%
학력	고등학교 졸업	74	24.3%
	전문대학교 졸업	33	10.9%
	대학교 졸업	191	62.8%
	대학원 이상	6	2%
합계		304	100

2)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동기 외상,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거부민감성, 내면화된 수치심의 전체 점수 및 하위 요인들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기 외상,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거부민감성,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모두 1~5점 범위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아동기 외상의 평균은 1.93으로 김은정과 김진숙(2010)의 연구(M=1.4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평균은 2.03으로 이승규와 최현정(2021)의 연구(M=1.4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6. 기술통계분석 (N=304)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아동기 외상	1.93	0.69	0.88	-0.09
정서학대	1.89	0.92	1.19	0.72
신체학대	1.57	0.80	1.59	1.83
정서방임	2.51	1.01	0.57	-0.50
신체방임	1.76	0.72	1.46	2.06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2.03	0.58	0.71	-0.08
심리적폭력	2.41	0.64	0.32	-0.26
신체적폭력	1.68	0.71	0.96	0.08
성적폭력	1.57	0.73	1.18	0.64
거부민감성	2.88	0.63	-0.22	0.29
예기분노	2.77	0.80	-0.12	-0.49
예기불안	2.68	0.87	-0.07	-0.49
과잉반응	2.94	0.91	-0.26	-0.25
거부지각	3.18	0.78	-0.55	0.40
내면화된 수치심	2.69	0.76	0.10	-0.70
부적절감	2.63	0.83	0.13	-0.78
공허	2.58	1.05	0.08	-0.96
자기차별	2.44	0.86	0.34	-0.71
실수불안	3.30	0.73	-0.13	-0.43

3)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먼저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기 외상,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거부민감성, 내면화된 수치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변인 별로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r = .528, p < .001$), 거부민감성($r = .413, p < .001$), 내면화된 수치심($r = .561,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아동기 외상 정도가 심할수록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아지고,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경우 거부민감성($r = .403, p < .001$), 내면화된 수치심($r = .364,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많이 할수록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거부민감성은 내면화된 수치심($r = .632,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1	1a	1b	1c	1d	2	2a	2b	2c	3	3a	3b	3c	3d	4	4a	4b	4c	4d	
1 아동기 외상	1																			
1a 정서학대	.886***	1																		
1b 신체학대	.827***	.729***	1																	
1c 정서방임	.763***	.564***	.405***	1																
1d 신체방임	.741***	.542***	.582***	.371***	1															
2 테이트폭력 가해행동	.528***	.482***	.509***	.222***	.546***	1														
2a 심리적폭력	.454***	.431***	.427***	.217***	.424***	.886***	1													
2b 신체적폭력	.465***	.408***	.434***	.209***	.498***	.880***	.605***	1												
2c 성적폭력	.415***	.367***	.451***	.089	.507***	.724***	.420***	.669***	1											
3 거부민감성	.413***	.417***	.335***	.248***	.342***	.403***	.450***	.280***	.192***	1										
3a 예기분노	.268***	.318***	.229***	.099	.238***	.372***	.422***	.263***	.158***	.821***	1									
3b 예기불안	.285***	.307***	.225***	.166***	.227***	.305***	.314***	.234***	.173***	.697***	.512***	1								
3c 과잉반응	.437***	.400***	.344***	.319***	.347***	.311***	.320***	.233***	.187***	.778***	.418***	.372***	1							
3d 거부지각	.220***	.186***	.184***	.156***	.188***	.174***	.258***	.066	.028	.668***	.400***	.262***	.473***	1						
4 내면화된 수치심	.561***	.492***	.375***	.488***	.435***	.364***	.359***	.287***	.230***	.632***	.407***	.519***	.557***	.423***	1					
4a 부적절감	.550***	.475***	.328***	.527***	.413***	.337***	.313***	.279***	.237***	.533***	.314***	.437***	.497***	.364***	.933***	1				
4b 공허	.554***	.496***	.402***	.430***	.455***	.379***	.371***	.302***	.243***	.584***	.404***	.487***	.515***	.338***	.878***	.714***	1			
4c 자기차별	.463***	.416***	.391***	.304***	.395***	.386***	.355***	.308***	.300***	.569***	.377***	.480***	.494***	.364***	.879***	.723***	.787***	1		
4d 실수불안	.265***	.223***	.112	.332***	.146**	.065	.166***	.000	-.115*	.543***	.365***	.418***	.418***	.466***	.724***	.638***	.501***	.548***	1	
평균	1.93	1.89	1.57	2.51	1.76	2.03	2.41	1.68	1.57	2.88	2.77	2.68	2.94	3.18	2.69	2.63	2.58	2.44	3.30	
표준편차	0.69	0.92	0.80	1.01	0.72	0.58	0.64	0.71	0.73	0.63	0.80	0.87	0.91	0.78	0.76	0.83	1.05	0.86	0.73	

* $P < .05$, ** $P < .01$, *** $P < .001$

2. 매개효과 검증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 & Watson(2013)의 Model 6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종속변인인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아동기 외상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16.83, p<.001$). 즉, 아동기 외상의 1단위 증가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53 수준 증가를 가져왔다($B=.53, t=10.81, p<.001$).

다음으로 거부민감성을 예측하는 아동기 외상의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62.20, p<.001$). 즉, 거부민감성에 대한 아동기 외상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41, t=7.89, p<.001$). 아동기 외상의 1단위 증가는 거부민감성의 .41 수준 증가를 가져왔다.

세 번째로, 내면화된 수치심을 예측하는 아동기 외상과 거부민감성의 회귀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55.10,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에 대한 아동기 외상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36, t=8.14, p<.001$), 아동기 외상의 1단위 증가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36 수준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에 대한 거부민감성도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48, t=10.86, p<.001$). 거부민감성의 1단위 증가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48 수준 증가를 가져왔다.

네 번째로,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아동기 외상과 거부민감성 및 내면화된 수치심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47.24,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아동기 외상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45, t=7.83, p<.001$). 아동기 외상의 1단위 증가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45 수준 증가를 가져왔다. 다음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거부민감성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24, t=3.95, p<.001$). 거부민감성

의 1단위 증가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24 수준 증가를 가져왔다. 반면, 내면화된 수치심의 경우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4$, $t= -.64$, $p=.52$).

마지막으로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들의 간접효과를 통제하여도 아동기 외상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45$, $p<.001$).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을 종합한 최종모형은 <그림 3>과 같다.

표 8. 매개효과 검증 결과 (N=304)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SE</i>	<i>t</i>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아동기 외상	.53	.04	10.81
	F(1,302)=116.83, $p=.000$, $R^2=.28$			
거부민감성	아동기 외상	.41	.05	7.89
	F(1,302)=62.20, $p=.000$, $R^2=.17$			
내면화된 수치심	아동기 외상	.36	.05	8.14
	거부민감성	.48	.05	10.86
	F(2,301)=155.10, $p=.000$, $R^2=.51$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아동기 외상	.45	.05	7.83
	거부민감성	.24	.05	3.95
	내면화된 수치심	-.04	.05	-.64
	F(3,300)=47.24, $p=.000$, $R^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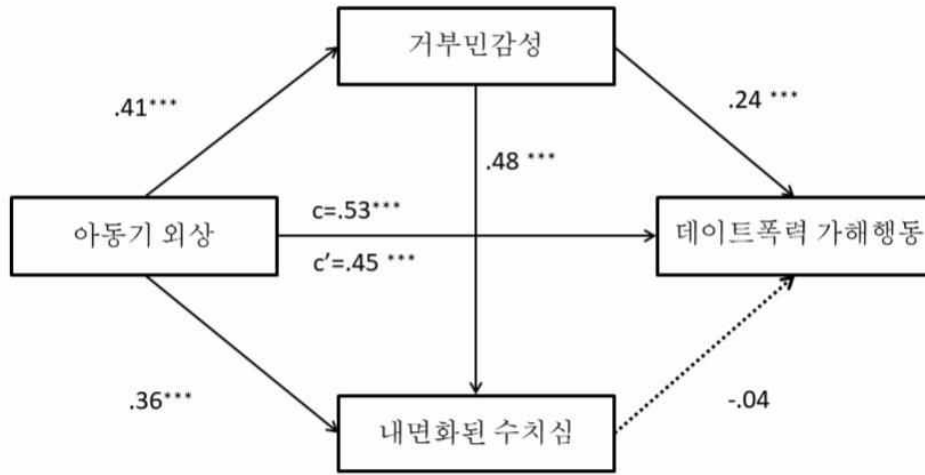


그림 3. 최종 모형

*** $p < .001$, c= 총 효과, c'=직접효과

3. 간접효과 검증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에 대한 간접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아동기 외상이 거부민감성을 거쳐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으로 미치는 경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10$, 95% Bias-corrected CI =.05 ~ .15). 즉, 아동기 외상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라는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아동기 외상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쳐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2$, 95% Bias-corrected CI =-.07 ~ .03). 즉, 아동기 외상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동기 외상이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쳐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1$, 95% Bias-corrected CI =-.04 ~ .02). 즉, 아동기 외상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순차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4-1은 기각되었다.

표 9. 간접효과 Bootstrapping 분석결과

(N=10,000)

Indirect effects	Bootstrap estimates		95% 신뢰구간	
	<i>B</i>	<i>SE</i>	Boot LLCI	Boot ULCI
아동기외상 → 거부민감성 →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10	.03	.05	.15
아동기외상 → 내면화된 수치심 →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02	.03	-.07	.03
아동기외상 → 거부민감성 → 내면화된 수치심 →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01	.01	-.04	.02

VI. 논 의

본 연구에서는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각각 매개하는지, 나아가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외상,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거부민감성, 내면화된 수치심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서윤주, 박선태, 원유나, 2020; 오윤희, 임성문, 2018; 조우연, 김경희, 2015; Widom, Czaa, & Dutton, 2014; Lee, Reese-Weber, & Kahn, 2014; Simons et al., 2008)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아동기 외상은 거부민감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성인은 연인의 거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배라영, 최지영, 2018; Ibrahim et al., 2015; Chango et al., 2012)를 지지한다. 또한, 아동기 외상은 내면화된 수치심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절하하고 수치심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선행연구(Shahar, Doron, & Szepsenwol, 2015; 최은영, 안현의, 2011; Fowke et al., 2012)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거부민감성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사이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

이 높다는 선행연구(이희경, 김경희, 이홍권, 2014; Jacobs & Harper, 2013; Volz & Kerig, 2010)와 일치한다. 또한,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의 거부를 예민하게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수치심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연구(Gratz et al., 2010; Scott et al., 2017; Godfrey, 2017; 서지영, 201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끝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많이 경험할수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Hundt & Holohan, 2012; Thomaes et al., 2011)를 뒷받침한다.

둘째,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거부민감성은 이 둘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거부민감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기에 주 양육자로부터 반복적인 거부 경험을 받은 개인은 타인으로부터의 거부에 과도하게 예민하게 되고(Mclachlan, Zimmer-Gembeck, & McGregor, 2010), 이러한 거부 신호에 대한 민감성은 연인관계에서 거부나 배신을 느낄 때 강한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상대를 공격하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Jacobs & Harper, 2013).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외상이 거부민감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명진, 양난미, 2017)와 거부민감성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신지연, 최수미, 2017)가 통합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명진과 양난미(2017)는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 중 예기분노가 거부민감성과 가장 관련이 높음을 보여주었으며, 이승규와 최현정(2021)은 예기분노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하위요인이라고 보았다. 본 연

구에서도 거부민감성 4개의 하위요인과 거부민감성 문항 총점 간 상관관계를 통해 거부민감성과 가장 관련이 높은 하위요인이 예기분노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성인이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연인의 거부를 보다 민감하게 지각하여 분노를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기 외상 경험이 거부민감성을 증가시키고, 증가한 거부민감성이 결국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유발하게 하므로, 아동기 외상 경험을 지닌 사람들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이들의 아동기 외상 경험을 다뤄줄 필요도 있겠지만, 외상 경험은 이미 과거에 발생한 일이며 이에 직접 개입해서 다루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매개변인에 해당하는 거부민감성에 개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외상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내면화된 수치심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높인다는 선행연구(Fowke et al., 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내면화된 수치심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장다연, 2021)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처럼 내면화된 수치심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수치심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Sippel과 Marshall(2011)의 연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진단받은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

으며, Wright 등(2008)의 연구는 범죄경력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면화된 수치심 총합점수의 평균은 두 선행연구의 총합점수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점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총합점수의 평균은 두 선행연구의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연령의 차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Thomaes(2011)의 연구에서는 만 10~13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Aslund(2009)의 연구에서는 만 15~18세의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두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은 신체적·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수치심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충동적으로 표출하게 되고 친밀한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성인은 청소년보다 수치심으로 야기되는 부정적 정서들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진경, 2018).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20대 성인들은 수치심으로 인한 감정들을 억제할 수 있어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인 상대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넷째,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순차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외상이 거부민감성을 거쳐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였으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면화된 수치심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성인은 어린 시절 반복적인 거부 경험으로 인해 거부 신호에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 있다. 거부 신호에 민감해지면 중립적인 자극에서조차 자신을 거부한 것이라고 오해석하여 무의식적으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내면화된 수치심은 직접적으로 연인 상대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본 연구의 결과로 미뤄보아, 내면화된 수치심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 또 다른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Gilbert와 Miles(2000)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성인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이러한 경향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Stuewig 등(2010)은 일반 성인의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난의 외재화(Blame externalization)²⁾가 완전 매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수치심이 비난의 외재화를 거쳐서만 간접적으로 심리적·신체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성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면서 수치심이 만성화된다. 이들은 연인관계에서 수치심을 느꼈을 때 고통스러운 감정과 손상된 자아를 회복하고자 자신의 잘못을 연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연인을 비난하게 되는데, 이는 연인관계를 악화시키고, 상대를 적대시하게 되어 결국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할수록 자기 비난 경향성이 높아지게 되어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Gilbert와 Miles(2000)의

2) 비난의 외재화(Blame externalization)는 정신병질 성격 평가검사(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 PPI)의 하위척도 중 하나이며, 자신의 문제를 타인의 잘못으로 여기고 세상에 대한 적의를 품는 지각 작용을 평가한다.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비난의 외재화를 추가하여 내면화된 수치심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자는 Levy 등(2001)의 거부민감성 모델을 적용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거부민감성 모델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거부민감성 모델의 1~4단계 중 1단계 ‘거부민감성은 아동기 외상 경험으로부터 발생한다’와 2단계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모호한 단서들도 의도된 거부 신호로 쉽게 지각한다’와, 3단계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일단 거부되리라 생각되면 자기 비난, 무가치함을 느끼는 수치심을 경험한다’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하지만, 4단계 ‘내면화 수치심이 거부 단서로 인한 행동적 반응인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나타나게 한다’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Levy 등(2001)의 거부민감성 모델의 4단계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Levy 등(2001)의 거부민감성 모델의 4단계에서의 ‘행동적 반응’은 정서적 과잉 반응과 행동적 과잉 반응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행동적 반응 중 행동적 과잉 반응, 즉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만을 측정했기 때문에 Levy 등(2001)의 거부민감성 모델 4단계에서 의미하는 ‘행동적 과잉반응’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 적대감, 질투, 배신감, 증오와 같은 정서적 과잉행동을 포함해서 측정한다면, 내면화된 수치심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으로 이르는 경로의 결과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서적 과잉반응을 포함하여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아동기 외상 경험으로 인한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상담할 때 이들의 과거 외상 경험 혹은 폭력적 행동을 일으키는 갈등 상황이나 환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외상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개인의 인지적 특성에 개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이제까지 연구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거부민감성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성인의 거부민감성 수준을 평가하여 거부 단서에 대한 사고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인지행동상담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설문으로만 이루어졌으므로 연구대상자 개인의 실제 특성과 태도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동기 외상 경험 척도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유무를 물어보는 문항들은 민감하면서도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답변이 긍정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임상가용 외상사건 면접 도구를 함께 활용하거나 데이트폭력 사례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편향되지 않는 답변을 얻기 위해 역채점 문항을 추가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역코딩의 활용이 응답 오차를 증가시켜 불성실하게 응답한 데이터 51부를 삭제해야 했다. 정코딩과 역코딩 문항의 응답 사이에 체계적인 평균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서(고길곤, 탁현우, 강세진, 2015), 본 연구에서도 평균 차이로 인해 통계적 검증력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요인분석이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설정했던 내면화된 수치심과 종속변인인 데이트폭력 가해행동간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이 표본 특성의 차이인지 혹은 척도의 차이인지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추후 연구를 통해 반복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간의 관계에서 비난의 외재화와 같은 제3의 매개변인 혹은 역기능적 정서조절과 같은 조절변인이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강희순, 이은숙 (2014).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예측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3(4), 288-298.
- 경찰청 (2020). 경찰,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http://www.police.go.kr>에서 2021년 7월 20일 인출.
- 고길곤, 탁현우, 강세진. (2015). 설문조사에서 문항의 역코딩 여부가 응답결과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측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3), 515-539.
- 고진경 (2018). 수치심과 공격성간의 관계: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6(9), 339-346.
- 구교성, 구훈정 (2019).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긍정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편향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9(4), 505-524.
- 권혁남 (2017). 데이트폭력 문제: 젠더 역할과 파워 관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8(4): 1141-1157.
- 김민경, 현명호 (2013).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및 정서표현갈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1), 161-176.
- 김용태 (2010). 사회-심리적 특성으로서 수치심의 이해와 해결. **상담학연구**, 11(1), 59-73.
-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 김정란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8), 73-90.
- 남귀숙, 이수진 (2020).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1), 87-107.
- 박명진, 양난미 (2017). 대학생 거부민감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03-127.
- 박선미, 이주영. (2021). 아동기 외상 유형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철회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경직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3(1), 75-96.
- 배라영, 최지영 (2018). 정서적 학대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친구관계 문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32(1), 29-52.
- 백옥현 (2010). 고등학교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의 경험과 데이트관계의 지각. **청소년학연구**, 17(1), 1-32.
- 서경현 (2007). 데이트 폭력의 공격적 피해여성들의 특성과 연인관계에 대한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2), 77-96.
- 서경현 (2008). 공격적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의 분노 및 분노표현, 정신병적 경향성, 중독성과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2), 21-39.
- 서윤주, 박선태, 원유나 (2020).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 허용도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1(5), 951-962.
- 서장원 (2021). 개정판 데이트 폭력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6(1), 109-123.
- 서지영 (2016). 거부민감성이 자기침묵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타인인정 욕구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승희 (2017). 아동기외상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 매개효과 검증: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43-763.
- 손연우, 권호인 (2018).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파트너 통제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549-566.
- 신재은, 김설민, 전미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유재학 (2015). 한국판 수치심 경험 척도 (K-ES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23-39.
- 신지연, 최수미 (2017). 거부민감성, 비대칭 패러다임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533-549.
- 심두경, 백용매 (2019). 아동기의 복합외상경험이 성인기의 우울과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 내·외통제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5(1), 17-37.
- 양승애, 서경현 (2015). 부모의 거부적 양육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8), 407-427.
- 오윤희, 임성문 (2018). 대학생이 지각한 가해동기와 데이트폭력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2), 223-245.
-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2009).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타당화: 상담 및 치료적 개입에서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563-578.
- 이소희, 신태섭 (2013). 초등학생의 인기에 대한 변화신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매개로. **초등교육연구**, 26(3), 163-186.
- 이승규, 최현정 (2021). 아동기 학대 경험과 데이트 폭력 행위: 거부민감성과

- 냉담-무정서 특질의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1), 1-11.
- 이영숙 (2005). 이성교제중 발생한 폭력. *대한가정학회지*, 36(4), 49-62
- 이영아, 이인혜 (2016). 남녀 대학생에서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 주의초점의 매개효과와 주의전환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2), 641-660.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SS) 의 타당화 연구: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재란, 정근선 (2020). 국내 데이트 폭력 가해 연구 동향 분석. *교정담론*, 4(1), 211-241.
- 이현정, 장희순 (2014). 청소년의 복합 및 다중외상 경험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1), 39-59.
- 이희경, 김경희, 이홍권 (2014). 거부민감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정서를 통한 파국적 사고의 매개된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97-121.
- 임성미, 이상희 (2019). 거부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기위로능력을 통한 내면화된 수치심의 조절된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11(20), 145-162.
- 장다연 (2021). **성인애착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남운, 유은영 (2015). 내면화된 수치심의 임 상적 타당성: 자기통제력, 공격성 및 중독 가능성 과의 상관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481-496.
- 정미자 (2019). **취약성 자기애가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우연, 김경희 (2015). 대학생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 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성인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9, 71-96.
- 조인형, 김영희 (2009). 대학생의 교제변인, 애착유형, 데이트관계의 질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논총**, 13(1), 105-124
- 최은영, 안현의 (2011).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 인간 외상 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285-302.
- 통계청 (2020).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가을호. <http://www.sri.kostat.go.kr>에서 2021년 7월 20일 인출.
- 하수홍, 장문선 (2013). 정서적 학대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련성에서 거절민감성,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33-852.
- 하태순, 구훈정 (2017).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탈중심화, 사후반추와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7(3), 365-391.
- 한세영 (2007). 초기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7), 17-33
- 홍세은, 정지수 (2019).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형사정책연구**, 30(4), 69-104.
- 홍영오 (2017). 성인의 데이트 폭력 가해요인. **형사정책연구**, 28(2), 321-353.
-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91.

- 홍진이, 한기백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5), 367-389.
- 황은수, 성영혜 (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자기인식정서와 거절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9(3), 67-84
- 황지선, 안명희 (2015). 인간이해: 불안정 성인애착이 거절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6(1), 1-20.
- Adler, A. (1933).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inferiority feeling. *Superiority and social interest*, 50-58.
- Aizenman, M., & Kelley, G. (1988). The incidence of violence and acquaintance rape in dating relationships among college men and wo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29(4), 305 - 311.
- Allen, J. G. (1995). The spectrum of accuracy in memories of Childhood trauma.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3(2), 84-95.
- Alleyne, B., Coleman-Cowger, V. H., Crown, L., Gibbons, M. A., & Vines, L. N. (2011). The effects of dating violence, substance use and risky sexual behavior among a diverse sample of Illinois youth. *Journal of Adolescence*, 34(1), 11 - 1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uthor.
- Anderson, K. M., & Danis, F. S. (2007). Collegiate sororities and dating violence: An exploratory study of informal and formal helping strategies. *Violence Against Women*, 13(1), 87-100.
- Archer, J. (2002). Sex differences in physically aggressive acts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 Behavior*, 7(4), 313–351.
- Arditte, K. A., Morabito, D. M., Shaw, A. M., & Timpanbo, K. R. (2016). Interpersonal risk for suicide in social anxiety: The roles of shame and depression. *Psychiatry research*, 239, 139–144.
- Aslund, C., Starrin, B., Leppert, J., & Nilsson, K. W. (2009). Social status and shaming experiences related to adolescent overt aggression at school. *Aggressive Behavior*, 35(1), 1 - 13.
- Ayduk, O., Downey, G., & Kim, M. (2001).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7), 868–877.
- Bandura, A. (1978). Social learning theory of aggress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8(3), 12–29.
- Barlow, D. H., Ellard, K. K., Sauer-Zavala, S., Bullis, J. R., & Carl, J. R. (2014). The origins of neuroticism.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9(5), 481–496.
- Bell, K. M., & Naugle, A. E. (2008).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oretical considerations: Moving towards a contextual framework.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7), 1096–1107.
- Bernstein, D. P, & Fink, L. (1998). Childhood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San Antonio, TX: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Bondü, R., & Krahé, B. (2015). Links of justice and rejection sensitivity with agg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41(4), 353–368.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ume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95, 1-429.
- Brown, J. (2004). Shame and domestic violence: Treatment perspectives for perpetrators from self psychology and affect theory.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19(1), 39 - 56.
- Chan, K. L. (2011). Gender differences in self-repor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2), 167-175.
- Chango, J. M., McElhaney, K. B., Allen, J. P., Schad, M. M., & Marston, E. (2012). Relational stressors and depressive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Rejection sensitivity as a vulnerabi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3), 369-379.
- Chapman, A. L., Walters, K. N., & Gordon, K. L. D. (2014). Emotional reactivity to social rejection and negative evaluation among person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8(5), 720-733.
- Christ, C., De Waal, M. M., Dekker, J. J., van Kuijk, I., Van Schaik, D. J., Kikkert, M. J., ... & Messman-Moore, T. L. (2019). Linking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depressive symptoms: The role of emotion dysregul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PLoS One*, 14(2), e0211882.
- Cinamon, R. G., & Blustein, D. L. (2020). Shame and the Psychosocial Costs of Contemporary Work: Implications for Career Interven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8(3), 238-253.
- Cohen, P., Brown, J., & Smailes, E. (2001).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 development of mental disorders in the general population.

-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4), 981–999.
- Cook, D. R.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New York: Multi Health System Inc.
- Cornelius, T. L., & Resseguie, N. (2007). Primary and secondary prevention programs for dating violen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3), 364–375.
- Crawford, E., & Wright, M. O. (2007). The impact of childhood psychological maltreatment on interpersonal schemas and subsequent experiences of relationship aggression. *Journal of Emotional Abuse*, 7(2), 93–116.
- Dardis, C. M., Dixon, K. J., Edwards, K. M., & Turchik, J. A. (2015). An examination of the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young men and women and associated theoretical explanat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 Abuse*, 16(2), 136–152.
- Dardis, C. M., Edwards, K. M., Kelley, E. L., & Gidycz, C. A. (2013).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The predictive roles of maternally versus paternally perpetrated childhood abuse and subsequent dating violence attitudes and behavior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2(1), 6–25.
- Dodge, K. A., Coie, J. D., Pettit, G. S., & Price, J. M. (1990). Peer status and aggression in boys' groups: Developmental and contextual analyses. *Child Development*, 61(5), 1289–1309.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 7(1), 45–61.
- Downey, G., Freitas, A. L., Michae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45.
- Downey, G., Mougios V., Ayduk, O., London, B., & Shoda, Y. (2004).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defensive motivational system: Insights from the startle response to rejection cues. *Psychological Science*, 15(10), 668–673.
- Dutton, M. A., & Goodman, L. A. (2005). Coercion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Toward a new conceptualization. *Sex roles*, 52(11–12), 743–756.
- Elison, J., Garofalo, C., & Velotti, P. (2014). Shame and aggressi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9(4), 447–453.
- Elkins, S. R., Moore, T. M., McNulty, J. K., Kivisto, A. J., & Handsel, V. A. (2013). Electronic diary assessment of the temporal association between proximal anger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Psychology of Violence*, 3(1), 100.
- Erozka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levels with respect to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parenting styles: A study with Turkish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7(1), 1–14.
- Exner-Cortens, D., Eckenrode, J., & Rothman, E. (2013).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teen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nd adverse health outcomes. *Pediatrics*, 131(1), 71–78.
- Farmer, E., & Andrews, B. (2009). Shameless yet angry: shame and its relationship to anger in male young offenders and undergraduate

- controls.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20(1), 48 - 65.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 Fowke, A., Ross, S., & Ashcroft, K. (2012). Childhood maltreatment and internalized shame in adults with a diagnosis of bipolar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9(5), 450-457.
- Foxhall, M., Hamilton-Giachritsis, C., & Button, K. (2019). The link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3), 289-326.
- Freud, S. (1905).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ume VII (1901-1905): A Case of Hysteria, Three Essays on Sexuality and Other Works, 123-246.
- Gardner, M. J., Thomas, H. J., & Erskine, H. E. (2019). The association between five forms of child maltreatment and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hild abuse & neglect*, 96, 104082.
- Gelles, R. J. (1997).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Thousand Oaks, CA: Russell Sage Foundation.
- Gilbert, P., & Miles, J. N. (2000). Sensitivity to Social Put-Down: it's relationship to perceptions of social rank, shame, social anxiety, depression, anger and self-other blam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4), 757-774.

- Gilbert, P., & Procter, S. (2006). Compassionate mind training for people with high shame and self-criticism: Overview and pilot study of a group therapy approach.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3*(6), 353–379.
- Godfrey, B. M. (2017). *The Effect of Social Rejection on Anger, Shame, and Panic in College Stud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Doctorate). Xavier University.
- Goodman, G. S., Quas, J. A., & Ogle, C. M. (2010). Child maltreatment and mem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1*, 325–351.
- Goss, K., Gilbert, P., & Allan, S. (1994). An exploration of shame measures—I: The other as Shamer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5), 713–717.
- Gratz, K. L., Rosenthal, M. Z., Tull, M. T., Lejuez, C. W., & Gunderson, J. G. (2010).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emotional reactivity and delayed emotional recovery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role of shame. *Comprehensive Psychiatry, 51*(3), 275–285.
- Greenman, S. J., & Matsuda, M. (2016). From early dating violence to adult intimate partner violence: Continuity and sources of resilience in adulthood.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26*(4), 293–303.
- Harper, F. W. K., Austin, A. G., Cercone, J. J., & Arias, I. (2005). The role of shame, anger, and affect regulation in men's perpetration of psychological abus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12), 1648 - 1662.
- Hayes, A. F. (2015). An index and test of linear moderated mediatio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50*(1), 1–22.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azan, C., & Shaver, P. R. (1994).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research on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5(1), 1–22.
- Helgeland, M. I., & Torgersen, S. (2004). Developmental antecedent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omprehensive Psychiatry*, 45(2), 138–147.
- Herrenkohl, T. I., & Jung, H. (2016). Effects of child abuse, adolescent violence, peer approval and pro violence attitudes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adulthood.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26(4), 304–314.
- Holmes, K., & Sher, L. (2013). Dating violence and suicidal behavior in adolescents. *Adolescent Psychiatry*, 115–122.
- Hundt, N. E., & Holohan, D. R. (2012). The role of shame in distinguishing perpetra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US veteran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5(2), 191–197.
- Ibrahim, D. M., Rohner, R. P., Smith, R. L., & Flannery, K. M. (2015). Adults' remembrances of parental acceptance - rejection in childhood predict current rejection sensitivity in adulthood.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44(1), 51–62.
- Jacobs, N., & Harper, B. (2013). The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39(1), 3–12.
- Jennings, W. G., Park, M., Richards, T. N., Tomsich, E., Gover, A., & Powers, R. A. (2014).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physical abuse and adult dating violence using a casual inference approach in an

- emerging adult population in South Korea. *Child Abuse & Neglect*, 38(12), 1902–1913.
- Johnson, D. M., Shea, M. T., Yen, S., Battle, C. L., Zlotnick, C., Sanislow, C. A., ... & Zanarini, M. C. (2003). Gender difference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indings from the Collaborative Longitudinal Personality Disorders Study. *Comprehensive psychiatry*, 44(4), 284–292.
- Katja, S., Esther, H., Charlotte, R., & Babette, R. (2011). Rejection Sensitivity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8(4), 275–283.
- Katz, J., Jones, D. J., & Beach, S. R. H. (2000). Distress and aggression during dating conflict: A test of the coercion hypothesis. *Personal Relationships*, 7(4), 391–402.
- Kaufman, G. (2004).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Khoshkam, S., Bahrami, F., Ahmadi, S. A., Fatehizade, M., & Etemadi, O. (2012). Attachment style and rejection sensitivit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worry among Iranian college students.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8(3), 363–374.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rug, E. G., Mercy, J. A., Dahlberg, L. L., & Zwi, A. B. (2002). The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The lancet*, 360(9339), 1083–1088.
- Kuper, J. L., & Turanovic, J. J. (2020). Adjustment problems in early adulthood among victim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A focus on adolescent risk and protective factors. *Crime & Delinquency*, 66(3), 337–362.

- Langhinrichsen–Rohling, J., Misra, T. A., Selwyn, C., & Rohling, M. L. (2012). Rates of bidirectional versus unidirectional intimate partner violence across samples, sexual orientations, and race/ethnicities: A comprehensive review. *Partner Abuse, 3*(2), 199–230.
- Lawrence, A. E., & Taft, C. T. (2013). Sham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8*(2), 191–194.
- Leary, M. R. (2015). Emotional responses to interpersonal rejection. *Dialogues in clinical neuroscience, 17*(4), 435–441.
- Lee, M., Reese–Weber, M., & Kahn, J. H. (2014). Exposure to family violence and attachment styles as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men and women: A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9*(1), 20 – 43.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terpersonal rejection, 10*, 251–289.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wis, H. B. (1987). Shame and narcissitic personality, In D. L. Nathanson (Ed.), *The many faces of shame* (pp.133–161). New York: Guilford Press.
- Lewis, M. (2003). The role of the self in shame. *Social Research: An International Quarterly, 70*(4), 1181–1204.
- Lewis, M., Alessandri, S. M., & Sullivan, M. W. (1992). Differences in shame and pride as a function of children's gender and task difficulty. *Child development, 63*(3), 630–638.

- Li, S., Zhao, F., & Yu, G. (2020). A meta-analysis of childhood maltreatment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50*, 101362.
- Liu, J., Fang, Y., Gong, J., Cui, X., Meng, T., Xiao, B., ... & Luo, X. (2017). Associations between suicidal behavior and childhood abuse and neglect: A meta-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20*, 147-155.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3), 481-506.
- MacKinnon, D. P., Valente, M. J., & Gonzalez, O. (2020). The correspondence between causal and traditional mediation analysis: the link is the mediator by treatment interaction. *Prevention Science, 21*(2), 147-157.
- Madan Morris, A., Mrug, S., & Windle, M. (2015). From family violence to dating violence: Testing a dual pathway mode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9), 1817 - 1835.
-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1) 97-102.
- Matos, M., & Pinto-Gouveia, J. (2010). Shame as a traumatic memory.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7*(4), 299-312.
- Matos, M., Pinto-Gouveia, J., & Duarte, C. (2013). Internalizing early memories of shame and lack of safeness and warmth: The mediating role of shame on depression.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41*(4), 479-493.
- McLachlan, J., Zimmer-Gembeck, M. J., & McGregor, L. (2010). Rejection sensitivity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Peer rejection and

- protective effects of parents and friends. *Journal of Relationships Research*, 1(1), 31–40.
- McNaughton Reyes, H. L., Foshee, V. A., Bauer, D. J., & Ennett, S. T. (2012). Heavy alcohol use an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during adolescence: Family, peer and neighborhood violence as moderators. *Prevention Science*, 13(4), 340 - 349.
- Messman-Moore, T. L., & Coates, A. A. (2007). The impact of childhood psychological abuse on adult interpersonal conflict: The role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patter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Emotional Abuse*, 7(2), 75–92.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4). Security-based self-representations in adulthood. *Adult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159–195.
- Milaniak, I., & Widom, C. S. (2015). Does child abuse and neglect increase risk for perpetration of violence inside and outside the home? *Psychology of Violence*, 5(3), 246 - 255.
- Milletich, R. J., Kelley, M. L., Doane, A. N., & Pearson, M. R. (2010). Exposure to interparental violence and childhood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s related to physical aggression in undergraduate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5(7), 627–637.
- Niolon, P. H., Kearns, M., Dills, J., Rambo, K., Irving, S., Armstead, T., & Gilbert, L. (2017). *Eliminat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across the lifespan: A technical package to prevent intimate partner violence, including teen dating violence*. Atlanta, G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O'Sullivan, D., Watts, J., & Shenk, C. (2018). Child maltreatment severity, chronic substance abuse, and disability status. *Rehabilitation Psychology, 63*(2), 313–323.
- Ogata, S., Silk, K. S., & Goodrich, S. (1990). The childhood experiences of the borderline patient, in *Family Environ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 Oshri, A., Sutton, T. E., Clay-Warner, J., & Miller, J. D. (2015). Child maltreatment types and risk behaviors: Associations with attachment style and emotion regulation dimens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3*, 127–133.
- Pietrzak, J., Downey, G., & Ayduk, O. (2005). Rejection sensitivity as an interpersonal vulnerability. Baldwin M. W, (Ed.) New York: Guilford Press.
- Pinto Gouveia, J., & Matos, M. (2011). Can shame memories become a key to identity? The centrality of shame memories predicts psychopathology.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5*(2), 281–290.
- Pollak, S. D., Cicchetti, D., Horing, K., & Reed, A. (2000). Recognizing emotion in faces: Developmental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Developmental Psychology, 36*(5), 679– 688.
- Richey, A., Brown, S., Fite, P. J., & Bortolato, M. (2016). The role of hostile attributions in the associations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5*(10), 1043–1057.

- Riggs, D. S., & O'Leary, K. D. (1989). Intentional falsification in reports of interpartner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2), 220–232.
- Rosenbach, C., & Renneberg, B. (2011). Rejected, Excluded, Ignored: The Perception of Social Rejection and Mental Disorders—A Review, *Verhaltenstherapie 21*, 87–97.
- Rubio-Garay, F., López-González, M. A., Carrasco, M. Á., & Amor, P. J. (2017). The prevalence of dating violence: A systematic review. *Papeles del Psicólogo, 38*(2), 135–147.
- Schore, A. N. (2002). Advances in neuropsychanalysis, attachment theory, and trauma research: Implications for self psychology. *Psychoanalytic Inquiry, 22*(3), 433–484.
- Scott, L. N., Wright, A., Beeney, J. E., Lazarus, S. A., Pilkonis, P. A., & Stepp, S. D. (2017).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and aggression: A within-person process mode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6*(4), 429 – 440.
- Shahar, B., Doron, G., & Szepeswol, O. (2015). Childhood maltreatment, shame proneness and self criticism in social anxiety disorder: A sequential mediational model.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2*(6), 570–579.
- Shorey, R. C., Cornelius, T. L., & Bell, K. M. (2008). A critical review of theoretical frameworks for dating violence: Comparing the dating and marital fields. *Aggression & Violent Behavior, 13*(3), 185–194.
- Simons, L. G., Burt, C. H., & Simons, R. L. (2008). A test of explanations for the effect of harsh parenting on the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and sexual coercion among college males. *Violence and Victims, 23*(1),

66 - 82.

- Sippel, L. M., & Marshall, A. D. (2011).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nd the mediating role of shame processing bia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5*(7), 903–910.
- Stark, E. (2009). Rethinking coercive control. *Violence against women, 15*(12), 1509–1525.
- Steel, A. L., Watkins, L. E., & DiLillo, D. (2017). Physical abuse in childhood as a predictor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mong dating couples: the role of negative affect during conflict. *Partner abuse, 8*(2), 204–220.
- Straus, M. A. (2008). Dominance & symmetry in partner violence by male &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32 nations. *Children & Youth Services Review, 30*(3), 252–275.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tuewig, J., Tangney, J. P., Heigel, C., Harty, L., & McCloskey, L. (2010). Shaming, blaming, and maiming: Functional links among the moral emotions, externalization of blame, and aggress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 91 - 102.
- Thomaes, S., Stegge, H., Olthof, T., Bushman, B. J., & Nezlek, J. B. (2011). Turning shame inside-out: 'Humiliated fury' in young adolescents. *Emotion, 11*(4), 786 - 793.
- Tussey, B. E., Tyler, K. A., & Simons, L. G. (2021). Poor parenting, attachment style, an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 of interpersonal violence*, 36(5-6), 2097-2116.
- Tyler, K. A., Schmitz, R. M., Ray, C. M., & Simons, L. G. (2017). The role of entitlement, self-control, and risk behaviors on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Violence and Victims*, 32(6), 1079 - 1095.
- Van der Kolk B. A., & Courtois, C. A. (2005) Complex developmental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5), 385-388.
- van der Put, C. E., Lanctôt, N., De Ruiter, C., & Van Vugt, E. (2015). Child maltreatment among boy and girl probationers: Does type of maltreatment make a difference in offending behavior and psychosocial problems?. *Child abuse & neglect*, 46, 142-151.
- Velotti, P., Garofalo, C., Bottazzi, F., & Caretti, V. (2017). Faces of shame: Implications for self-esteem, emotion regulation, aggression, and well-be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151(2), 171-184.
- Volz, A. R., & Kerig, P. K. (2010). Relational dynamics associated with adolescent dating violence: The role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relational insecurity.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9(6), 587-602.
- Webb, M., Heisler, D., Call, S., Chickering, S. A., & Colburn, T. A. (2007). Shame, guilt, symptoms of depression, and reported history of psychological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31(11-12), 1143-1153.
- Widom, C. S., Czaja, S., & Dutton, M. A. (2014). Child abuse and neglect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A prospective investigation. *Child Abuse & Neglect*, 38(4), 650 - 663.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World health statistics 2010*.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Wright, K., Gudjonsson, G. H., & Young, S. (2008).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offence-related shame and guilt. *Psychology, Crime & Law, 14*(5), 415 - 423.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Zimmer-Gembeck, M. J., Nesdale, D., Webb, H. J., Khatibi, M., & Downey, G. (2016). A longitudinal rejection sensitivity model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Unique roles of anxiety, anger, blame, withdrawal and retribu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1), 1 - 17.

ABS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nalized Shame

A-yo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nalized shame would mediate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nd if they would hav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between them among single men and women. For this purpose, the study surveyed 304 single men and women ages 19~29 and used childhood traumatic questionnaire, conflict tactics scales, rejection sensitivity scale, internalized shame scale to analyze data.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childhood trauma, dating violence,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nalized shame; second, the study examines whether rejection sensitivity had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nd found that it had mediating effects between them; third, the study also examines whether internalized shame would have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nd found that it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between them; finally,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nalized shame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This study demonstrated the rejection sensitivity mediated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dating violence and provided base data about the mechanism and path of childhood trauma leading to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thus holding its significanc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childhood trauma,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rejection sensitivity and internalized shame

부 록

부 록 1. 아동기 외상 질문지 단축형

부 록 2. 개정판 갈등척략척도

부 록 3. 거부민감성 척도

부 록 4.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부 록 5.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부 록 1. 아동기 외상 질문지 단축형

(Childhood Traumatic Questionnaire-Short Form: CTQ-SF)

※ 다음은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어린 시절 경험을 떠올리면서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없음	드물게있음	가끔있음	자주있음	매우자주있음
1	우리 가족은 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 (예: 멍청이, 똥땡이)	1	2	3	4	5
2	“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라고 들은 적이 있다	1	2	3	4	5
3	가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다	1	2	3	4	5
4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나 심한 말을 한 구성원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세계 맞아 멍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1	2	3	4	5
7	세계 맞아 병원에 간 적이 있다	1	2	3	4	5
8	회초리 이외의 물건(허리띠, 몽둥이)으로 맞은 적이 있다	1	2	3	4	5
9	나는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1	2	3	4	5
10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너무 많이 맞은 적이 있다	1	2	3	4	5
11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	1	2	3	4	5

12	가족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5
13	나는 우리 가족이 서로 가깝다고 느꼈다	1	2	3	4	5
14	우리 가족은 나를 지지해준다고 느꼈다	1	2	3	4	5
15	나는 우리 가족이 서로를 배려한다고 느꼈다	1	2	3	4	5
16	부모님이 식사를 제 시간에 챙겨주지 않은 적이 있다	1	2	3	4	5
17	가족들에게 나는 충분한 보살핌을 받았다	1	2	3	4	5
18	부모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1	2	3	4	5
19	내가 씻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어도 내버려둔 적이 있다	1	2	3	4	5
20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1	2	3	4	5

부 록 2. 개정판 갈등척략척도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 다음은 연애 경험 시 당신이 연인상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한지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인 상대에게 ○○○한 적이 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못마땅한 표정을 지은 적이 있다	1	2	3	4	5
2	짜증난 목소리로 화를 낸 적이 있다	1	2	3	4	5
3	욕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4	고함을 지르거나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다	1	2	3	4	5
5	침묵으로 저항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1	2	3	4	5
7	술을 먹고 주정을 부린 적이 있다	1	2	3	4	5
8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9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모욕한 적이 없다	1	2	3	4	5
10	상대방의 소유물을 던지거나 부순 적이 있다	1	2	3	4	5
11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1	2	3	4	5
12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진 적이 있다	1	2	3	4	5

13	상대방의 팔을 비틀거나 꼬집은 적이 있다	1	2	3	4	5
14	상대방을 밀친 적이 없다	1	2	3	4	5
15	상대방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1	2	3	4	5
16	상대방을 발로 찬 적이 있다	1	2	3	4	5
17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상대방을 때린 적이 있다	1	2	3	4	5
18	상대방을 심하게 계속해서 때린 적이 없다	1	2	3	4	5
19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행동을 조르거나 강력히 요구한 적이 있다	1	2	3	4	5
20	성행동을 하기 위해 상대방을 말로 위협한 적이 있다	1	2	3	4	5
21	성행동을 하기 위해 잡거나 누르는 등의 완력(힘)을 사용한 적이 없다	1	2	3	4	5
22	성행동을 하기 위해 상대방을 때리거나 다치거나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위협한 적이 있다	1	2	3	4	5

부 록 3.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 RS)

※ 다음을 읽고 여러분 자신은 어떠한지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1	2	3	4	5
2	나의 데이트 신청이 거절당한다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1	2	3	4	5
3	결국 나를 떠날 것이라 생각돼도 짜증이 나 화가 나지 않는다	1	2	3	4	5
4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화가 난다	1	2	3	4	5
5	다뤘을 때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1	2	3	4	5
6	나의 데이트 신청이 거절당할까봐 불안하다	1	2	3	4	5
7	SNS나 메신저로 연락했을 때 답이 오지 않을까 봐 걱정되거나 불안하지 않다	1	2	3	4	5
8	배신당하거나 버려질까봐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9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다시는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10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앞으로는 깊은 관계를 맺기 힘들 것이다	1	2	3	4	5
11	거부당할 것이라 생각되면 거리감이 생긴다	1	2	3	4	5
12	거부당할까봐 관계를 먼저 끊으려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3	나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더라도 거부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5
14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면 거부당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1	2	3	4	5
15	내 앞에서 문을 광 닫고 나간다면 거부당했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부 록 4.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nternalized Shame Scale: ISS)

※ 다음 문항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드는 생각과 느낌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여 친숙해진 감정 및 경험을 묘사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깊게 읽은 후, 당신이 얼마나 자주 경험하고 있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스스로 꽤 괜찮다고 느낀 적이 없다	1	2	3	4	5
2	나는 어쩐지 내쳐진 느낌이다	1	2	3	4	5
3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 적이 없다	1	2	3	4	5
4	나는 스스로를 비웃고 자신을 알본다	1	2	3	4	5
5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하다	1	2	3	4	5
6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결코 이상(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1	2	3	4	5
7	나는 내 자신이 매우 보잘 것 없이 느껴진다	1	2	3	4	5
8	나는 부적절감을 강하게 느끼고 자신에 대한 회의로 가득 차 있다	1	2	3	4	5
9	나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인간으로서 뭔가 결함이 있는 것 같다	1	2	3	4	5
10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그들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결점이 드러나는 것이 무섭지 않다	1	2	3	4	5
12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늘 부족함을 볼 뿐이다	1	2	3	4	5
13	다른 사람이 내 결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4	나는 실수를 하면 몽둥이로 내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고 싶다	1	2	3	4	5
15	실수를 해도 나는 움츠러들지 않는다	1	2	3	4	5
16	나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결국 압도되고 만다	1	2	3	4	5
17	때로 내가 수천조각으로 부서질 것 같이 느껴진다	1	2	3	4	5
18	나는 내 신체와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5
19	때로 나는 내 자신이 거대하게 느껴진다	1	2	3	4	5
20	때로 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같을 때 땅이 열려 나를 삼켜버렸으면 싶다	1	2	3	4	5
21	내 안에는 내가 채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괴리가 있다	1	2	3	4	5
22	나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음을 느낀다	1	2	3	4	5
23	나의 외로움은 텅빈 공허감과 같다	1	2	3	4	5
24	나는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1	2	3	4	5

부 록 5.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만 19~22세
- ② 만 23~26세
- ③ 만 27~29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전문대학교 졸업(2,3년제)
- ④ 대학교 졸업(4년제)
- ⑤ 대학원 이상(수료, 재학 포함)